

온라인게임 부문
엔씨소프트 리니지II



영화 이상의 게임 - '리니지II : 혼돈의 역사'

공개 시범서비스 일주일만에 동시접속자 55,000명 기록 ... PC업계까지 '어부지리'



"영화보다 낫다!", "이제까지 본 어떤 그래픽보다 좋다!"

지난 7월 9일 공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리니지II'에 쏟아지는 찬사들이다. 텍스트 수준에 머물던 머드게임을 그래픽화해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던 리니지가 '영화같은 게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며, 게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에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올 상반기 온라인게임 부문 최고의 히트콘텐츠로 '리니지II'를 선정했다.

게임의 역사를 바꿔 놓겠다!

리니지II의 세계는 두개의 큰 대륙 위에 세워진 세 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젊은 왕 라울이 내란을 규합한 신흥왕국 아덴, 고대 엘모아덴 왕국의 직계임을 내세운 대륙 북부의 군사대국 엘모어, 그리고 바다 저편 서쪽에는 혈육간의 왕위계승 다툼으로 혼돈의 한가운데 빠져있는 그레시아. 이들 왕국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영지 단위의 강한 자치체 때문에 내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리니지II는 지난 7개월간 시행됐던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지난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서버 수용한계인원을 초과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리니지II는 총 12개의 서버에서 6만 6,000명의 동시접속자수와 70만명 이상의 가입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접속하려는 게이머들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어 엔씨소프트는 서버 추가와 서버 한계인원 증가를 검토하고 있다.

리니지II로 인해 업계에서는 3D 게임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리니지가 2D 온라인게임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리니지II는 기존 3D 게임인 '뮤', 'A3', '릴'

등을 제치고 당분간 3D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PC로 연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게임

리니지II에 대한 평가는 'PC로 연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게임'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첨단 3D 시스템이 연출하는 실감나는 전투장면,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제작한 생동감 넘치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초보자들도 단번에 참여하게 만든 편리한 인터페이스,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따른 게임 몰입성 등. 게임을 즐긴 많은 사람들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꿈의 게임'이라는 애칭을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픽뿐만이 아니다. 리니지II는 이전의 게임이 상품 수준이었다면 작품이라는 평가가 어울릴 정도로 게임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리니지II는 게이머에게 단순히 게임플레이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작품성 있는 영화가 그렇듯이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화두를 던진다. 리니지II의 퀘스트는 '협력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질문은 자신의 캐릭터를



투쟁을 통해 강하게 만들어 성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협력을 통한 관계 맺기를 통해 완성된 자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하다.

리니지Ⅱ는 분명 리니지 1편에서 이어지는 시리즈물이다. 하지만 리니지 1편과 리니지Ⅱ와의 연관성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전혀 없다. 물론 리니지Ⅱ가 1편의 기본 시스템과 호평 받았던 요소들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성과 시스템, 아덴 월드에 퍼져 있는 모든 요소들은 1편과 다른 '완전독립체'이다.

특히 혈맹과 동맹, 국가간 전쟁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정치 시스템의 마지막에 자리잡은 '권력이양' 시스템과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연상시키는 장원 기반의 지역 경제 시스템 등은 리니지 1편의 스케일을 몇 배나 뛰어넘는 기획이다.


고급사양에 대한 장벽 - '비장의 카드'로 해결

이런 명품게임 리니지Ⅱ도 장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펜티엄4 1GHz, 지포스4 Ti 정도 사양의 PC가 구비돼야 리니지Ⅱ의 참 맛을 즐길 수 있어, PC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비장의 카드로 업체간 제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고사양 온라인게임 '리니지Ⅱ'를 보급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리니지Ⅱ'에 최적화된 PC를 생산, 보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Ⅱ 게임과 인텔의 2.4GHz의 펜티엄4 프로세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FX5600',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XP'가 탑재된 PC가 86만 9,000원(모니터 제외)에 PC방은 물론 일반 개인에게까지 보급되게 됐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전국 1만 8,000개 리니지 가맹 PC방중에서 신청을 받아 대폭 할인한 값으로 그래픽카드를 제공했다. 이른바 '리니지Ⅱ 효과'로 컴퓨터 관련 업체들까지 깊

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리니지Ⅱ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만간 캐릭터들이 전직을 할 수 있는 '2차 전직' 시스템과 팻에게 방어구와 무기를 장착하고, 언어를 가르쳐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팻 시스템'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아덴왕국의 수도인 아덴영지도 곧 추가돼 흥미를 더할 계획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황홀한 판타지 세계에 자신을 내던질 준비가 됐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면 된다. 리니지Ⅱ에 도전할 게이머들은 리니지Ⅱ 홈페이지(www.lineage2.co.kr)를 통해 회원 가입 및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 안전지대인 마을의 신전 등에서 출발하게 된다. 인터페이스 기능을 모두 익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면 캐릭터를 이동해 사냥을 해볼 필요가 있다.



리니지 시리즈에서 퀘스트는 일종의 보상이 있는 수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경험치, 아데나, 아이템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레벨이 오름에 따라 자신의 레벨에 맞는 퀘스트를 하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퀘스트는 NPC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NPC는 해당 퀘스트의 내용과 수행 가능한 레벨을 알려준다.



리니지Ⅲ는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지원한다. 종족별로 거의 모든 직업의 PC가 솔로잉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종족의 직업이 파티를 맺어 힘을 합치는 파티사냥 또한 색다른 재미가 있다.